



### 환율 1,000원 돌파

# 원화 '나홀로 약세' 맥 못추는 한국경제

두바이유가 17일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원·달러 환율이 2년3개월만에 1,020원대를 넘어선 한국은행이 구두개입을 하는가 하면 증시는 1,500원대로 주저 앉으면서 한국경제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국제 원자재가 상승에 따라 국내 소비자물가는 3%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취업자 증가폭도 크게 줄어드는 등 실물경제도 불안한 모습이다.

## ■ 원·달러 환율 왜 오르나

미국 달러와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만 나홀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1차적 원인은 국내 수급불균형이다. 올해 들어 경상수지 적자행진이 이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주식 판매와 함께 주식배당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면서 달러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여기에 세계적인 신용경색 현상에 따른 달러화 매집세, 즉 외화자금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도 한몫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율 상승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외환당국이 환율상승을 묵인할 경우 1,050원선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되면 하락세로 복귀하면서 1,000원선 아래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수급 불균형·경상수지 적자·외국인 매도... 약세 침침산중  
수출증대 효과 보다 경기 위축 가능성... 물가 상승 부채질

않는 분위기다.

## ■ 경기위축 가능성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원·달러 환율이 1천원을 돌파한 가운데 환율급등이 수출증대효과를 불러오기보다는 국내경기의 위축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상승은 세계경기가 둔화되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어서 무역수지 개선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원·달러 환율상승은 물가상승과 함께 소비와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쳐 내수부진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외화채무를 지고 있는 기관들의 부채상환 부담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증시 이탈을 유도해 국내 주가하락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 ■ 물가 직격탄·산업계 비상

원·달러 환율상승은 오일쇼크 수준의 고유가와 맞물려 국내물가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원가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져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할 때 소비자물가가 0.07% 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들어 벌써 환율이 100원 가량 오른 점을 감안하면 환율효과만으로도 소비자물가가 0.7% 상승했다는 것이다.

원재료의 수입의존도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원료 구매를 수입에 의존하는 항공·정유·철강업종은 환율급등에 따라 채산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식품업체들도 1~2개월에 한번씩 들어오

는 원자재의 대금결제기간을 최대한 늦추는 방법으로 환율상승에 따른 손실을 줄이는 상황이다.

## ■ 투자자들 희비 엇갈려

환율급등에 따라 선물환계약(환헤지)을 체결한 해외펀드 투자자와 증권업체, 엔화대출자 등이 적지 않은 손해를 보게 됐다.

특히 선물환 계약을 체결한 해외펀드 투자자들은 펀드 수익률이 저조함에 따라 원금손실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해외 유학생 자녀에게 당장 외화를 송금해야 하는 부모들의 부담도 커졌다. 반면 환헤지를 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수출업체들은 고스란히 환차익을 누리게 된다.

## ■ 대책은 없다

이같은 총체적인 난국에 대해 딱히 취할 만한 조치가 없는 정부로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병찬 한국은행 국제국장장은 17일 "환율상승 속도가 다소 빠른 감이 있다"면서 "외환당국은 환율상승 속도에 우려하고 있으며 외환시장의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구두개입을 단행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코스피 1500선까지 '와르르'

17일 주식시장이 미국발 약재로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증시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코스피지수가 일단 1,500선까지 밀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美 금융 불확실성 바닥 몰라 더 불안

◇ "최대 약재는 끝을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 = 최근 증권시장 급락의 최대 약재는 일단 미국의 신용경색에서 출발한 시장 내 불확실성을 꼽았으나 무엇보다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미국이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대책은 내놓고 있으나 유동성 위기로 인해 JP모건으로 인수된 베어스턴스가 웰스트리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일한 금융회사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FRB 등 미국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잇따라 각종 처방전을 내놓고 있으나 제대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도 시장의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코스피 1,600 붕괴... "1,500선대 초반이 추가 지지선 - 극단적 저평가 상태" = 증시전문가들은 심리적 지지선 역할을 했던 코스피 지수 1,600선이 무너지자 다음 지지선은 1,500선 초반대를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급락세가 지속되는 장세에서는 추가 지지선을 설정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삼성증권은 1,540선에서 1,715사이에서 횡보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교보증권은 1차 지지선으로 1,550선을 제시하고 상황에 따라 1,520선까지 밀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지지선을 말하는 게 의미가 없다"며 "다만 추가이연배율(PER)은 역사적인 저평가 상태"라고 말했다.

◇투자전략 "쉬는 것도 투자" vs "지금이 주식 살 때" =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투자전략과 관련해서는 극명하게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을 내놓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역사적인 저평가 상태인 만큼 주식 매수 또는 분할 매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 흐름을 감안해 정보기술(IT)주와 자동차주 등 수출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17일 광주시내 한 증권사를 찾은 투자자들이 이날 증시 급락으로 인해 온통 파란색으로 물든 전광판을 뚫어 바라보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뭉 뚫었다

# '5대 주력산업 + IT 융합' 車·조선 신기술개발 주력

정부가 기업규제의 대대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가동,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와 함께 자동차·조선 등 5대 주력산업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한 신기술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5대 주력산업+IT 융합 신기술 개발=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식경제부는 기업규제의 대대적 완화를 통해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세계 30위권의 기업환경을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오는 2012년 10위선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5월말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모두 찾아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이를 대통령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와 민간대표들이 참석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해 힘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또 지식경제부는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신기술산업 등 산업군별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구성,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조선·건설 등 5대 주력산업의 경우 이동통신·소프트웨어 등 IT 융합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기 위해 5년 내 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한다=오는 8월부터 경차 마티즈가 대형차 에쿠스보다 에너지효율등급이 낮은 기현상도 사라진다.

모두 40개로 나눠져 있는 현행 에너지

효율등급의 경우 유사한 배기량끼리만 비교대상이 되므로 소비자들이 진짜 효율등급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 단일군 6등급 체제로 전환해 고효율 자동차를 보급하기에 나선다.

또 한국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저감 압박을 받을 것에 대비,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큰 에너지 효율기술 개발을 늘리기 위해 1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위기의 '중소기업 구하기' =중소기업업청은 최근 원자재난과 관련, 원자재가 날팔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원자재 구매자금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원자재 가격변동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행정안전부·대법원·국세청 등 전산망을 통합 연계해 '법인실명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창업절차와 비용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업절차 대폭 간소화하고 전략적 투자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심시장은 문화공간을 포함한 테마형 시장으로, 지방시장은 지역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된다. 특히 향후 5년간 주차장 350개를 조성해 '1시간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 보급률을 현 43%에서 2012년 70%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생필품 50개 집중관리 하리는데... 정부 가격통제 '묘수찾기' 고민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생활 필수품 50개 품목에 대해 집중 관리를 주문하자 정부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들의 수급 관리를 통해 서민 생활에 치명적 영향을 줄 '물가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는 백번 타당하지만, 50개 품목의 선정이나 가격 통제와 관련된 뾰족한 방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대통령의 발의의도에 가장 가까운 관리대상을 꼽자면 우선 통계를 생활물가지수를 들 수 있다. 이 지수는 지난 1998년 500여개 품목으로 구성된 소비자물가지수가 채감물가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식료품 가운데 쌀과 두부, 라면, 빵,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갈치, 명태, 고등어, 우유, 식용유, 사과, 배추, 설량, 초코파이, 커피 등이 포함되고, 의류 중에서는 남녀바지와 속옷, 아동복, 운동복 등이 지수상장에 들어간다.

아울러 도시가스, 등유 등 연료비와 감가, 인통제, 병원 외래진료비 등 의약품비, 시내·외 버스와 택시료, 전화료 등 서비스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봉투비 등 공공요금, 중·고·대학생 납입금과 학원비, 유치원비 등 교육비도 생활물가지수에 포함된다.

하지만 전체 품목이 모두 152개에 달해 대통령이 언급한 '50개'로 추려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연합뉴스

## 영어로 면접·말하기 달라진 대기업 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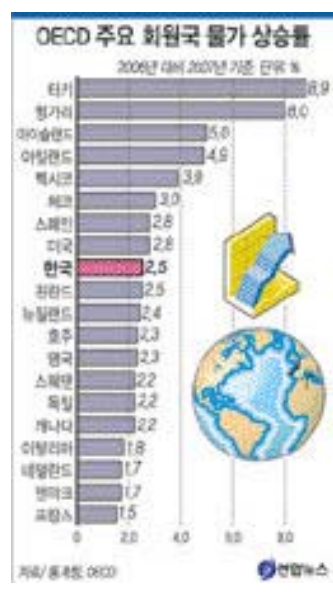
올해 적지 않은 대기업이 채용방식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17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 중 94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채용방식에 있어 바뀌는 부분이 있는가'라고 설문한 결과 31.9%가 '올해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조선·중공업(60.0%), 전기·전자(55.6%) 등에서 채용제도에 변화를 주는 기업이 많았다. 이러한 제도 변화로는(복수응답) '영어면접 도입 또는 영어말하기 시험 도입'(36.7%)이 가장 많았다. 이어 '면접제도 강화'(26.7%), '영어면접 강화'(20.0%), '면접방식 변경'(13.3%) 등의 순이었다.

잡코리아 김희수 사장은 "올해 대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영어말하기 능력 평가 강화와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강화"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11위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



고유가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 및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23.5(2000년=100)로 전년인 2006년(120.5)에 비해 2.5% 가량 올랐다. 이는 30개 OECD 회원국 중 11위에 해당된다.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 100에서 2001년 104.1, 2002년 106.9, 2003년 110.7, 2004년 114.7, 2005년 117.8, 2006년 120.5, 2007년 123.5로 7년간 23.5% 상승했다.

지난해 OECD 회원국 중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터키로 1년새 무려 8.9% 올랐고, 헝가리(8%), 아이스랜드(5%), 아일랜드(4.9%), 멕시코(3.9%), 체코(3%) 등도 3%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리스(2.9%), 스페인(2.8%), 미국(2.8%), 슬로바키아(2.7%) 등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오름폭을 보였고 폴란드(2.5%), 핀란드(2.5%)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스위스와 노르웨이는 1년 동안 물가가 각각 0.8%와 0.7% 상승하는데 그쳤고, 일본은 전혀 오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2.5%였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평균은 2.3%였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가정하고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아이스랜드가 194로 우리나라의 두 배에 육박했고, 노르웨이(188), 덴마크(185), 아일랜드(175), 스위스(169), 핀란드(164), 스웨덴(157) 등도 1.5배가 넘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도양	인포메이션, 안내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19	062-385-6006
장애인지능교육학교	T/M 여 경력사원 모집합니다.	고졸/경력1년	1200~1400	03/19	010-6838-1501
㈜그린텔	KTF 서광주 멤버스플러자 정규직 상담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9	042-223-4900
㈜죽림	영업관리/생산관리 채용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3/20	061-381-0056
광림직업전문학교	훈민교사정보통신/컴퓨터분야 정규직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1	062-529-3000
㈜포유씨엔디	경리, 회계사무원(건설업체경력자)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3/21	011-626-1482
색지	IBM 편집디자인 경력직 모집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3/22	062-223-9309
신세기발전기	비상발전기 제조, 설치, 서비스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3/22	062-952-7447
㈜중앙철강	경리사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22	062-374-6991
㈜에스티티	전자제품 컨테이너 상하차 직원 모집(삼성광주전지내)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3/23	062-514-6464
중앙생명 FCSI본부	2008년 상반기 종합금융컨설턴트 인턴채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3	062-351-1380
삼우기연	기계설비 용접 관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24	062-951-9131
㈜H&T	ISKT/주5일114/CRM 멀티상담원(동시모집)	초대졸/경력무관	2200~2400	03/24	062-350-6333
삼성서비스 동광주지점	서광주 삼성서비스센터 접수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3/24	062-525-9704

Recruiting K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